

전남도, 미래 청정에너지 수소산업 메카 조성 첫발

민선 7기 1호 외자유치 투자 기업 여수산단 에어리퀴드코리아와 협약 수소전기버스·수소출하센터 구축

전남도가 미래 청정에너지인 수소산업의 메카 조성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전남도는 지난 11일 여수산단에 있는 에어리퀴드코리아 제4공장에서 윤병태 정무부지사, 권오봉 여수시장, 김소미 에어리퀴드코리아 부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앞으로 전남 수소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전남도는 기대하고 있다. 민선 7기 제1호 외자유치 투자협약 기업인 '에어리퀴드코리아'의 제4공장에서 행사를 진행해 의미를 더했다. 에어리퀴드는 프랑스 파리에 본사를 두고 세계 80여 나라에 진출한 산업용·의료용 가스 제조기업이다. 김영록 전남지사 취임 후 지난 2018년 10월 파리 본사에서 여수 제4공장 증설 투자협약을 맺었으며, 지난해부터 공장을 가동 중이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에어리퀴드코리아는 친환경 모빌리티 사업 가속화를 위한 수소전기버스·화물차 특수충전소와 함께 수소 출하센터를 구축한다. 또 세계적

기술력을 바탕으로 산업용 수소 생산공장 증설과 액화수소 생산설비 신규 구축도 추진한다. 장기적으로는 탄소 포집 기술과 연계한 블루수소를 비롯해 해상풍력발전과 연계한 그린수소 생산에 참여할 방침이다. 전남도와 여수시는 에어리퀴드코리아가 추진하는 수소산업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정책 지원은 물론 인허가 등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 대전환 기조에 발맞춰 기후변화 대응 및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할 청정에너지 수소산업 육성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전남 동부권은 우수 자연조건과 산업 기반을 갖춘 수소산업의 최적지다. 여수 석유화

학단지와 광양제철소에서 생산하는 부생수소를 활용, 단기적으로는 그레이수소와 블루수소 산업을 육성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대규모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와 연계해 전주기 그린수소 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대규모 해상풍력과 그린수소 생산을 연계하는 '에너지 섬' 개발도 추진한다. 윤병태 부지사는 "에어리퀴드코리아는 민선 7기 첫 외자유치 기업으로, 실제 투자를 실현해 수소생산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전남의 첫 수소산업 업무협약을 통해 다시금 제1호의 새 역사를 함께 열게 돼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한방난임 치료 하세요”

광주시, 치료비 지원 참여자 난임여성 선착순 100명 모집

광주시는 “난임 여성의 자연 임신을 지원하기 위한 ‘한방난임 치료비 지원 사업’ 참여자를 선착순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해부터 광주시 한의사회와 업무 협약을 맺고 ‘한방난임 치료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난임여성 100명을 대상으로 한방난임 치료를 위한 약제비 및 혈액검사비 3개월분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73명의 난임여성에게 대한 지원이 이뤄졌으며, 지원 대상은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난임여성이면서 한방난임 치료 기간에 보조생식술을 받지 않아야 한다. 양방과 중복 지원은 안되며, 소득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사업참여 희망자는 오는 30일까지 광주시 한의사회(062-223-9481)로 문의한 뒤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의사회에서는 대상자를 선정해 개별 통보하고, 한방 난임 치료를 실시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대상자 거주지에 가까운 사업 참여 한방 병·의원을 지정받게 되며, 대상자는 집중치료 3개월, 경과관찰 3개월 등 총 6개월간 체질 및 건강상태에 맞는 한약과 침구치료 등을 받게 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해남 동물복지 만희농장 방문 김영록 지사, 안전 축산물 당부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난 12일 '동물복지 축산농장' 한우 부문에서 전국 최초로 인증 받은 해남군 소재 만희농장을 방문해 농장을 살피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에 매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도는 동물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도록 관리하며 동물의 복지를 증진한 축산농장을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인증해주는 제도다. 전남에는 한우 1개소, 젓소 3개소, 닭 32개소 등 총 36개 농가가 있다. 해남군 북평면에 소재한 만희농장은 아버지와 어머니, 딸이 함께 운영하는 가족 경영 농장으로, 한우 180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고품질 한우고기를 서울 소재 백화점에 납품해 연매출 1억원 이상의 고소득을 올리는 '전국1호 동물복지 한우농장'이다. 전남도는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해 그동안 전남형 동물복지농장인 녹색축산농장 309개소를 지정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김영록 전남지사와 명현관 해남군수가 12일 오후 전국 최초로 동물복지 한우 농장으로 인증 받은 해남군 북평면 만희농장을 방문, 김소영 대표 안내로 축사를 둘러보고 있다.

광주시, 석면 제거사업 속도 건축물 376동 슬레이트 처리

광주시에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석면 제거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노후 슬레이트에 있는 석면으로부터 시민 건강을 지키려고 10억 2500만원을 투입한다. 지붕이나 벽체에 석면 슬레이트가 사용된 건축물 376동을 대상으로 철거, 운반, 처리, 자봉 개량 등을 지원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을 우선 지원한다. 주택 1동 철거 시 전액, 지붕 개량 시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한다. 일반 가구는 철거 시 동당 344만원, 지붕 개량 시 3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2012년부터 54억원을 투입해 2950동의 슬레이트를 처리했다. 지난 4월 시작한 석면 슬레이트 건축물 현황 조사는 10월께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조사 결과는 환경부 석면 관리 종합정보망에 등록해 관리된다. 지난해 6월 시행된 석면 해체 감리인 등록제도를 통해 11개 업체가 석면 비산 예방에 힘쓰고 있다. 석면 피해자에게는 요양 생활수당, 요양 급여, 장례비 등도 지급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괘생이모자반 피해 10억7000만원 지원

전남도, 김·다시마 등 556어가
전남도가 지난 4월까지 4개월간 괘생이모자반 유입으로 김, 다시마, 미역, 톳 등 양식수산물 손해를 입은 556어가에 복구비 10억7000만원을 지원한다. 또 영여자금을 대출받은 189어가에 상환연기 및 이자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는 '농어업재해대책법'상 괘생이모자반에 의한 양식장 피해는 어업재해로 인정되지 않아, 그동안 전남도에서 수차례 정부에 어업재해로 인정해 지원할 것을 건의한 것이 반영된 데 따른 것이다. 중국해역에서 서식하는 괘생이모자반이 자연 탈락해 북서풍의 영향으로 지난 1~4월 진도, 신안, 진도, 톳 양식장으로 약 8.6이 유입해 진도, 신안 623어가에 19억6000만원의 피해를 줬다. 피해 어가는 그 규모와 정도에 따라 김, 톳 등 수산생물 입

식비와 같은 직접 지원과 영여자금 상환 연기, 이자 감면 등의 간접지원을 받는다. 피해 어가 가운데 희망 어가에만 2천만 원 한도에서 긴급 경영안정자금도 지원한다. 지역별 복구 소요액은 진도 7억3000만원, 신안 3억 4000만원이다. 전남도는 신속한 피해 어가 복구비 지원을 위해 도비 부담금 1억6100만원을 예비비로 지원할 계획이다. 최정기 전남도 수산자원과장은 "피해 어가에 복구비 지원계획이 확정돼 경영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 안심하고 어업에 전념하도록 여름철 적조·고수온 피해대책도 마련해 추진하고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COP28 유치위, 첫 회의 갖고 활동 본격화

여수서...김경수 경남지사 등 참석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8) 유치위원회가 지난 11일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4차 집행회의를 열어 남해안남중권 탄소중립 실천 운동과 총회 유치 홍보 등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의지를 다졌다. 이날 회의는 공동위원장 김영록 전남지사가 직접 주재했다. 유치위 공동위원장은 김 지사를 비롯해 김경수 경남도지사, 권오봉 여수시장, 윤상기 하동군수 등 4명이다. 이날 회의는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이 '2021 P4G 서울 정상회의'에서 COP28 대한민국 유치를 공식 선언한 이후 처음 개최된 것으로, 권오봉 시장을 비롯한 조세훈·류중구 공동자문위원장, 이상훈 운영위원장, 정성만 집행위원장 등 COP28유치위원회 위원 3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지난 2월 유치위원회 정기총회 이후 그동안의 활동 상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올 하반기 남해안남중권 12개 시군의 탄소중립 실천 운동과 COP28 유치 집중 홍보 방안을 토론했다. 특히 COP28 유치 분위기 확산을 위해 남해안 남중권 자치단체와 교육청 등 공공기관의 '회용품 사용 줄이기 운동' 확산, 유치위에서 중점 추진하는 '탄소사냥꾼 활동' 확대, COP28 유치 서명운동 및 릴레이퍼포먼스, 온·오프라인 집중 홍보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김 지사는 "COP28 유치를 통해 동서 화합, 지역 균형발전은 물론 2050 탄소중립 실현,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획기적 저감 계기가 될 것"이라며 "여수를 중심으로 한 남해안남중권에 COP28을 반드시 유치해 지역인 열망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금남새마을금고 사옥 신축 착공기념

경품 대전치

■응모기간: 2021년 4월 15일 ~ 9월 30일 ■추첨일자: 2021년 10월 20일

2020년 출자금

3.0%

정기적금

1년 3.0%

자신만만자유예탁금

하루만 맡겨도
최고 1.5%

담보대출특판(100억)

최대한도 80%
최저이율 3.5%

1등 스타일러

2등 노트북

3등 음식물처리기

4등 로봇청소기

5등 공기청정기

응모권 지급 조건

- 출자금 신규 및 추가 10만원 입금
- 정기예금 신규
- 정기적금 신규
- 대출 신규 (범위내, 공제약관 제외)
- 공제 상품 가입 (생명, 화재)
- 체크카드 신규 발급 (영수증 제출)
- 자동이체 신규
- 가맹점 결제계좌 신규

*상기 이미지는 실제상품과 다를 수 있으며, 제세공과금은 본인 부담입니다. (중복당첨 시 최상위 경품 1개에 한하여 지급함)

MG금남새마을금고

본점 T.223-8007(대인동 한미쇼핑 1층) 총장지점 T.223-7217(총장로5가입구)